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⑭ 초발심(初發心)



초발심 전하는 일, 佛法 전하는 일

장마에다 높은 습도와 온도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어느 부분에 속 시원한 것이 없이 답답한 요즘. 초발심이란 단어로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 되어 부처님 뜻 이루는 시간되기를 기대하며 붓을 잡아 봅니다.

'초발심'의 사전적 의미는 "불도를 구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일으킴"이라는 말로 신발의(新發意-보리심을 처음 일으킴) 또는 금도심(今道心-전에는 속인이었지만 지금은 불도를 믿는 마음)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요.

초발심, 발심 없이 수행이 있을 수 없고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 발심은 헛된 망상이라고들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일깨우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발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가 속인이었을 때 나를 이끌어 불법을 믿는 마음을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요?

허물을 크게 반성하였을 때?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때?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악업을 반성할 때?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지극정성을 다할 때? 자신의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인줄 몰랐을 때?

그렇습니다. 처음 발심이 어렵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제대로 세우기만 한다면 무한공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초발심(初發心), 나에게 온 그 초발심은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요? 나에게 온 초발심을 주변 분들에게 전하는 일, 바로 "부처님 법" 전하는 일 아닐까요?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③⑦ 정용숙의 '한 뼘의 희망'

안수정등의 삶

〈岸樹井藤〉

한 뼘의 희망 / 정용숙

경주 불국사 말이지 뒤꼍에 대숲이 있고, 검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는데 뒤란으로 돌아가면 무수히도 많은 돌무덤이 있어, 큰 것이야 고작 한 뼘 반쯤, 작은 것은 새끼손가락만할까

고 고만고만한 것들이 짊어진 희망은 크기가 다 같아

누가 뒤란을 돌다 무심히 던져 놓은 돌멩이가 먼저 것에 가 앉았을 게야
그것은 자꾸만 쌓이면서 돌탑이 되고, 바라는 게 많았던 눈에 돌부처로 보였던 게지
이제는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닌 한 구 한 구 부처로 서서 다시 찾은 나를 지켜보고,
눅눅하고 어둔 뒤란에서 어깨 가득 가난한 자들이 자꾸 져 나르는 희망을 넙죽넙죽
받아 짊어지고 서 있었던 게지

앞뜰은 하얀 불국사가 있고, 뒤란에서는 돌무덤인 거지
불국사는 덩치만큼 거대한 역사를 짊어졌어,
한 역사를 짊어지는 게 제 몫은 아니었다는 거야
돌부처도 마찬가지겠지,
대대손손 다만 사람의 희망을 짊어진 손톱만한 돌들의 집념, 짐작만 할 뿐인 거야

어렴풋 혈관 곳곳에 엉겨 붙어 내내 떨어져 나가지 않던 기억 속에서
나도 고만고만한 돌멩이 한 개인 거지
내 어미가 네 어미 위에 올린 고 고만고만한 돌멩이 하나

–정용숙 시집, 〈스쳐 지나가는 것들〉, 문학의전당, 2006

"나도 고만고만한 돌멩이 한 개인" 것을 시인은 몇 년 만에 깨달았을까. '고만고만한 희망 한 개'인 것을 얼마 만에 깨달았을까. 1년, 2년, 3년, 4, 5, 6, 10년. "고작해야 한 뼘 반쯤" 되는 돌무덤부터 "새끼손가락만"한 돌무덤이 모여 이룬, 그리하여 지금 한 구 한 구의 부처로 서 계시는 돌무덤들을 보며 시인은 "고만고만한" 우리네 중생들이 "짊어진 희망은 크기가 다 같아"라고 선언해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당위성과 보편성을 차근차근 진술(묘사)해나가고 있는 것이 이 시다. 전형적인 선경후정(先京後情)의 서정시다.

그런데 그 후정을 풀어나가는 시인의 솜씨가 일품이다. 우선 돌무덤의 시작을 알린다, "누가 뒤란을 돌다 무심히 던져 놓은 돌멩이가 먼저 것에 가 앉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만 쌓이면서 돌탑이 되고, 바라는 게 많았던 눈에 돌부처로 보였던 게"라고. 그리하여 "이제는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닌 한 구 한 구 부처"가 되어 서 계시는데, "다시 찾은 나"의 돌멩이는 물론, '진자리'("눅눅하고 어둔 뒤란")에서 "어깨 가득 가난한 자들이 자꾸 져 나르는 희망을 넙죽넙죽" 오늘도 묵묵히 "받아 짊어지고 서 있"는 돌무덤 부처님의 모습에서 시인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손톱만 한 돌들의 집념"을 포착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를 읽으며 필자도 문득, 불국사 뒤꼍의 대숲이 있는 "검고 허름한 집 한 채"에 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란에 있는 "한 뼘 반쯤" 되는 돌무덤부터 "작은" "새끼손가락만"한 돌무덤 부처를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어미보다 더 깊고 무서운 작은 돌무덤의 집념에 필자의 작은 삶의 돌멩이 하나도 가만히 얹어놓고 싶었다.

희망과 절망의 등가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안(詩眼)도 일품이다. 시인은 "앞뜰은 하얀 불국사가 있고"[희망], "뒤란에서는 돌무덤"[절망]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희망과 절망은 한 몸이고 동전의 앞뒤이며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임을 천하에 공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 자신도 "고만고만한 돌멩이 한 개"임을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다. 이상의 진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한 뼘=작은 손가락=희망=절망=돌멩이 하나=나(시인 자신)=우리들=중생들=불국사=불국사 뒤꼍 대숲이 있고, 검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성립한다.

기실, 우리네 삶은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삶이다. 저 언덕 위에 등나무가 있고 그 등나무 아래 우물이 있는 삶이라는 뜻이다. 인간세 자체를 그렇게 구성해 놓은 이야기다. 어느 날 어떤 나그네가 정처 없이 허허벌판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들불이 나 나그네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타들어 오고 있고, 그 앞엔 굶주린 코끼리가 나그네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나그네는 겁에 질려 죽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코끼리와 들불의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다 그만 우물에 빠졌다. 하지만 빠지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다 우물로 뻗은 등나무 넝쿨을 잡았다. 안심도 잠시. 우물 위를 바라보니 아직도 코끼리가 숨을 씩씩거리며 있다. 또한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사방에는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나그네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 우물 바닥에는 세 마리의 독룡(毒龍)이 시뻘건 입을 벌린 채 위에서 내려오는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그네는 올라가면 코끼리에게 잡아먹힐 것이고 내려가면 독룡에게 잡아먹힐 것이며 가만히 있어도 독사들이 몸을 해칠 것이다. 나그네가 처한 상황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다. 우물에 떨어질 때 허겁지겁 잡은 등나무 넝쿨을 가만히 보니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 먹고 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있는데 이마 위로 등나무 가지에 있는 꿀벌 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고 배고픈 나그네는 그 꿀을 받아먹는데 정신이 팔려 우물 위의 코끼리도 우물 아래 독룡도 사방의 독사도 검은 쥐와 흰 쥐도 잊어버리고 꿀을 받아먹는 재미에 모든 것을 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간세를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정용숙 시인의 말처럼 우리 각자가 다 각각 제 몫만큼의 "한 뼘의 희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닐까. 어디 한 곳 편하게 발 디디고 설 장소가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내면에 돌무덤(돌탑, 돌부처)을 이루고 있는 "손톱만 한 돌들의 집념"을 무한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불국사 뒤꼍 대숲이 있고, 검고 허름한 집 한 채로 세 들고 싶은 밤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가까스로 심정지 벗어났지만
디스크까지 겹쳐 고통

한국서 홀로 가족 생계 책임지던 스리랑카 이주민 삼밧씨
병원비 1000만원에 허리 · 무릎 수술…"가족 위해 일어나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